

큰 스님 수행한담

세상살이 힘들지 않아요



○68년 5월 봉원사에서 펼쳐진 영산재 시연에 앞서 관음의식을 행하고 있는 덕암스님(사진 오른쪽)

를 모르는 어려움은 것입니다. 또 없으면 없는대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잘 보세요. 꽃잎이 서 있는데 그림자가 구부러진 것 보았습니까. 인과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것은 자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저렇다 말이 많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집도 절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그런 것은 필요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원래 출가하고부터 선보다는 교를 통해 불법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내 일생을 전법교화로 보내게 하는 동기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7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부처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더욱 큼니다.

'내것'만 챙기다 보면 번뇌 쌓이고 세상 살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괴로워 합니까.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이런 불평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스승들로부터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능엄경> 서문에 있는 '설식기부(設食飢附)'란 말이 그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배가 부른데, 배고프다는 말만 하고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법을 실천에 옮겨야 할 말로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인간은 본래 몸종이를 받은 것 자체가 욕심 덩어리로서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내 눈, 내 아내, 내 나라, 내 절, 내 돈, 내 돈... 이런 소유욕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뇌를 쌓게 하고 그래서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법 삶의 보람이 생깁니다. 불교는 본시 마음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요, 천년 만년을 산다해도 그것이 잠시 잠깐인데 마음을 함부로 써야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 율곡계 사는 것이 곧 부처님 법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행을 이룰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약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라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많은 사람은 진리를 보기가 어렵고 또 그 진리를 본다고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혼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람있고 뜻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허상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인간의 씨앗'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복제되고, 그래서 인간이 복제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떠들썩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할 수는 있어도, 생명에너지인 혼까지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세상이라고 혼, 즉 사람의 마음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의 본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혼의 생명에너지를 모아 부처님 법을 따라 보세요. 부처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만능시대라 해도 '마음 복제' 불가능 "물질로 살지 말고 혼으로 살아야 합니다"

포교는 대중을 감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아도 성의와 열의가 없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신념이 한 평생 짊어지고 온 화두였습니다. 스님네가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신도들도 자신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법륜사에서 포교에 온 힘을 쏟고 있을 때 한 신도가 찾아와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죽고 싶다'는 하소연으로 상담을 의뢰해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죽고 싶은 정도로 괴로운 일도 많고,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도 일어나고, 힘겹게 살고 싶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괴로움은 자기가 살아 있다는 증거나 오히려 기뻐야 할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몸 보고 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현대에서 소유욕을 버리라고 한다면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소리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보시는 모두 주되, 아무 조건없이 주는 것입니다. 다 갖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 다 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세상 살기가 왜 힘들겠습니까. 세상 살기가 왜 괴로겠습니까. 85년을 살다보니 백년도 잠깐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물줄기라도 힘있게 흐르면 바위를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복용하고 안하고는 병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방편에 그달려 세상을 살다 보면 허송세월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욕으로 진실되게 매달려 세상을 살다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곧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작은 물줄기에 비유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중도사상에 의지해 살면 웅달생겨

수는 없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세상이라고 혼, 즉 사람의 마음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의 본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혼의 생명에너지를 모아 부처님 법을 따라 보세요. 부처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인지 사람들은 나에게 보람있게 삶을 사는 방법을 묻곤합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주저없이 부처님의 중도 정신에 입각해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원로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입문한 행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계를 지키고, 똑같이 정진해야 합니다.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할 때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평생 토록 모신 제자 아난(阿難)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스스로 등(燈)으로 여기며 지탱하여 남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법)를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김용운 불교와 수학 3

불교에서는 인명(冥明)으로 불려지는 논리학이 있었다. 그것은 주로 종교적인 논리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정말 논리가 되지는 못했으나 분명한 형식 논리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종(宗):聲(소리)은 무상하다. 인(因):所作性(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유(喻):法(법)으로서 所作性은 모두 무상하기 때문이다. 기령 환이리와도 같이. 명(明)이란 학문이라는 뜻이며 인(因)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 형식은 인명(冥明)이라 부른다. 우리의 관상에서도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이것을 연구하여 그 저서가 일본에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리

희랍과 불교의 판타지

이 말씀에서 희랍의 주지주의 철학자와도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지(知)는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라는 주지주의적인 신념이기에 나의 '지(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지(知)'를 바탕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협동적 연구가 중요시된다. '지(知)'와 노력(정진)의 목적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인류를 생각하

'자등명 법등명' 논리사고 형성의 모태 희랍논리학 2천년 지나 무한론 도달

는 일이다. 불자끼리 서로 격려하여 탐구하는 주제는 항상 <지(知)와 그것으로 얻은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는 일에서 시작되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이 양상은 초월자(神)에게 절대적으로 귀의(歸依)하는 유대, 기독교의 교단 생활과는 판이하다. 이것은 오히려 플라톤 아카데미를 연상케 한다. 플라톤 아카데미의 현관에는 <기하학(논리, 지성을 닦는 법)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말지어다>라고 쓰여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인식론, 철학, 과학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고대 불교 교단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며 불교학은 여러 학문 분야를 내포한다. 플라톤 사상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의 형식 논리를 완성한다. 이것은 유클레이데스의 <원론>에 집대성이 되어 서양 수학의 기초가 되었다. 석가모니가 자등명(自燈明)을 가장 가까이 모신 제자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전했음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 지적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형식논리를 형성케 하는 사상적 모태가 된다. 실제로

트 기하학으로 집대성되었으나 불교의 인명은 그 후 수학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희랍과 불교 사상이 공통적으로 주지주의적 경향을 가졌으면서도 희랍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유한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불교적 관심은 바른 지성으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것'이 있었으며, 이것은 인간의 실존 문제이며 불교적인 지의 대상이다. 그리하여 사유는 마음 깊은 곳을 파헤친다. 과학은 자연적인 대상만을 문제삼은 것에 비해 불교의 중심 과제는 전 인류적 차원의 주제이다.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모양도 끝도 없는 세계이다. 인명이 이런 것을 대상으로 삼을 때 희랍적 정밀 논리가 일하는 대소, 순서의 구별을 빠져나가고 만다. 불교의 인명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학문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인간 문제가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희랍 논리학의 계열이 겨우 2000년후에야 당도한 무한론에 단숨에 뛰어올 수 있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Advertisement for 'Himalaya Chanyang Tanseung'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It features an image of incense sticks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benefits for health and relaxation. Contact information for Daegu Yura Hanbang is provided.

Advertisement for 'Nanchi-bing Treatment' (난치병 치료). It claims to cure various chronic conditions like B-type hepatitis and high blood pressure using natural ingredients. Contact information for Daegu Yura Hanbang is provided.

Advertisement for 'Chuncheon Eusan-ga'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It promotes a health product called 'Ki (氣) is your life force'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It includes a list of symptoms it trea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oushan.

Advertisement for 'Gyeongju Namseok Glasses' (경주 남석 돌안경). It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the quality and variety of glasses available. Contact information for Gyeongju Namseok is provided.